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24

2024/6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수진 | 감수 최지연 | 담당 이서희·황수연

Email 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해양규범연구실(051-797-4707)

Contents

국제법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2

ITLOS 룩셈부르크의 소송 제기와 잠정조치 요청

국제기구/ 국제규범

국제연합(UN) 5

군소도서개도국 제4차 군소도서개도국 회의에서 '앤티가바부다 아젠다' 채택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9

UNFCCC OECD 회원국, 2022년에 기후재원 1천억 달러 제공 목표 달성
2024년 UNFCCC 당사국총회 키워드 전망

지역별 동향

북아메리카 14

미국 2024 발리카탄 훈련, 최초로 남중국해 필리핀 EEZ에서 진행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전문연구원 황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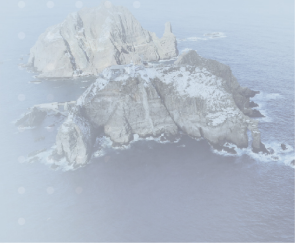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룩셈부르크의 소송 제기와 잠정조치 요청

2024년 6월 3일 룩셈부르크는 멕시코를 상대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룩셈부르크 국기를 게양한 준설선 '정허(Zheng He)'호 억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¹⁾ 이어 2024년 6월 7일 룩셈부르크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1항²⁾에 근거해 ▲선원의 기본권과 자유 보호, ▲기국인 룩셈부르크의 권리보호, ▲분쟁 악화 방지(멕시코가 유럽준설회사 European Dredging Company SA에 부과한 관세 징수 금지), ▲절차상 평등권 보장을 위해 룩셈부르크 대리인에게 멕시코 영토에서 소송 절차와 관련한 조사 권한(특히 정허 선박 상태 확인 및 증거 수집) 보장 등을 구하는 잠정조치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2024년 6월 13일 유엔해양법재판소장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청문 절차를 개최할 것을 명령했다.

그림 1. 준설선 정허(ZHENG HE)호³⁾

그림 출처: Marine traffic 홈페이지
(2024.6.24.)

- 1) 룩셈부르크(ITLOS 수락)와 멕시코(ITLOS, ICJ, 특별중재재판소 수락) 모두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 1항 따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ITLOS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했다.
- 2) 어느 재판소에 정당하게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그 재판소가 일용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나 제11부(심해저) 제5절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재판소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3) 2010년 건조, 총톤수 8,015톤, 총길이 139m, 빙높이 3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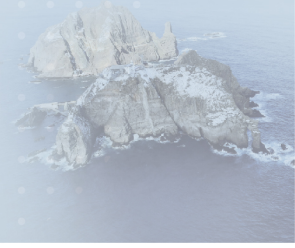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사건 배경

룩셈부르크의 주장에 따르면, 2023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는 외교 경로를 통해 정허호에 36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멕시코가 그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룩셈부르크는 멕시코에 외교적 해결책이 없을 시 국제적 구제 수단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한편 멕시코 국내 구제 수단을 통해 2024년 3월 22일 멕시코 탐피코 지방법원에서 멕시코 관세청의 관세부와 조치가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2024년 4월 19일 룩셈부르크는 멕시코 탐피코 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선박 석방을 재차 요청했음에도 멕시코 당국은 7개월 넘게 선박을 압류하고 있어, 룩셈부르크는 멕시코가 더 이상 실질적 논의를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개요

룩셈부르크의 소송 신청 제출문에 따르면 2023년 10월 5일 정허호는 다음 기항지인 멕시코 탐피코(Tampico) 항구로 향하기 위해 바하마 프리포트(Freeport) 항구를 출발했다. 10월 9일에 정허호는 멕시코 항만당국에 선박 도착 사전 통지하였으며, 10월 11일 오전 7시 30분에 탐피코항에 도착했다. 10월 17일 정허호 선박 대리인은 멕시코 항만당국에 탐피코항에서 정허호의 승무원 교대, 병커링 및 예방적 유지보수를 요청했고, 10월 21일 멕시코 항만당국으로부터 3번 부두로 이동 허가를 받고 같은 날 14시 20분에 탐피코항 3번 부두에 정박했다.

2024년 10월 24일 멕시코 세관은 정허호에 관세 9,570페소를 부과했으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납부 시에는 50%가 감면된다는 점을 안내했다. 2023년 10월 31일에 정허호 선박 대리인은 조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선의로 관세를 납부했다. 2023년 11월 1일 6시 15분에 탐피코 항만당국은 정허호에 다목적 터미널II로 이동하여 선원 교대, 병커링 및 선박 유지보수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7시 선박 이동을 위해 도선사 승선하는 중이었으나 기상 경보를 이유로 선박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탐피코 항만당국의 결정에 따라 정허호가 3번 부두에 억류된 상태에서 2023년 11월 1일 10시 30분에 동북지역 대외무역감사관(Administracion Desconcentrada en Auditoria de Comercio Exterior del Noreste)의 승선 검사가 있었고, 선박이 멕시코 영토에 반입되면 수입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준설선 정허호를 억류하며 선박의 가치에 비례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선장이 아닌 멕시코회사에 통보했다. 2024년 2월 15일에 멕시코 관세청은



정허호 관세 채무가 약 1,616백만 멕시코 페소(약 USD 96 백만 달러)이며 계속 채납 시 정허호의 소유권을 멕시코로 이전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룩셈부르크는 정허호에 부과된 명령이 불균형적이고 특이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멕시코가 유엔해양법협약 제2조(영해,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의 법적 지위), 제17조(무해통항권), 제18조(통항의 의미), 제19조(무해통항의 의미), 제21조(무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 제58조(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 제87조(공해의 자유), 제90조(항행의 권리), 제92조(선박의 지위), 제131조(해항에 있어서 동등 대우), 제300조(신의성실과 권리남용)를 위반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멕시코의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조치와 룩셈부르크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사안과 관련하여 룩셈부르크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였다. 이번 사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나포 선박에 대한 해양법협약 제292조 제1항에 근거한 선박과 선원의 즉시 석방 요청이 아닌 선원의 기본권 보호, 기국의 권리보호, 분쟁 악화 방지를 위한 관세 징수 금지 잠정조치 요청이 협약 제290조 제1항에 근거한 잠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멕시코가 선박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이다. 또한 본 사안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5조(국내적 구제의 완료)⁴⁾를 고려하여 선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인권이사회의 진정 절차⁵⁾ 등 국제인권법상 국내적 구제책 우선 소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잠정조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청문절차 등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최종 판정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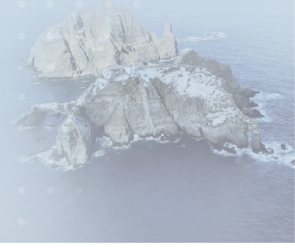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출처 : [1] ITLOS 홈페이지 <https://www.itlos.org/en/main/cases/list-of-cases/the-zheng-he-case-luxembourg-v-mexico/> (검색일: 2024.6.24.)

[2] ITLOS, THE "ZHENG HE" CASE (LUXEMBOURG v. MEXICO), 2024.6.13, Order 2024/1

[3] Marinetraffic 홈페이지 https://www.marinetraffic.com/nl/ais/details/ships/shipid:297606/mmsi:253261000/imo:9448982/vessel:ZHENG_HE (검색일: 2024.6.24)

4)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분쟁은 국제법상 국내적 구제가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만 규정된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5) 진정 절차(Communication)는 국제인권제도 하에서 인권침해를 제소하는 행위로 인권이사회,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 감시기구가 도입한 제도로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국내 구제책 생략 가능하나 인권이사회 진정 절차 및 조약 감시기구의 진정 절차는 국내 구제책 우선 소진을 요구한다.



UN

군소도서개도국

전문연구원 황수연

제4차 군소도서개도국 회의에서 ‘앤티가바부다 아젠다’ 채택

제4차 군소도서개도국(UN SIDS4) 국제회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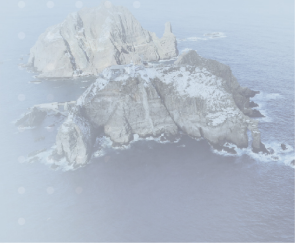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2024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카리브해 연안국인 소도서국 앤티가바부다에서 ‘제4차 군소도서개도국 국제회의(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가 개최되었다. UN은 10년마다 SIDS 국제회의를 6개 개최하며, 이 회의에서 39개 소도서 국가 지도자와 UN 지역위원회 준회원, 민간 부문, 학계, 시민 단체 등이 모여 SIDS가 직면한 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회복력 있는 번영을 향한 길을 계획하다(Charting the course toward resilient prosperity)’를 주제로 기후 위기를 포함한 39개 SIDS의 생존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앤티가바부다 아젠다(ABAS: Antigua and Barbuda Agenda)’를 채택했다.

그림 2. 제4차 군소도서개도국 국제회의



그림 출처: UN 홈페이지(2024.6.21.)

- 6) 군소도서개도국(SIDS)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취약성에 직면한 39개 소도서국가(앤티가바부다, 바하 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카보베르데, 코모로, 쿡 제도, 쿠바,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피지, 그레나다,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키리바시, 몰디브,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싱가포르,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이셸, 솔로몬제도, 수리남, 동티몰,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투발루, 바누아 투)와 18개 UN 지역위원회 준회원(아메리칸사모아, 앵귤라, 아루바,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북마리아나 연방, 그라스, 프렌치 폴리네시아, 과들루프, 괌, 마르티니크, 몬세라트, 뉴칼레도니아, 푸에르토리코, 세인트마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으로 구성된다. (SIDS 회원국 목록 링크: <https://www.un.org/ohrlls/content/list-sids>)



‘앤티가바부다 아젠다’는 국제사회의 목표 지향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회복력 있는 번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SIDS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SIDS가 원하는 미래 비전’과 향후 10년을 위한 ‘회복력 있는 번영을 위한 새로운 선언’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UN 군소도서개도국 국제회의 개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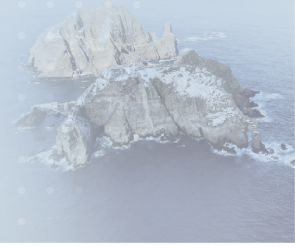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구분	개요	회의 성과	주요 논의 분야
제1차 SIDS	1994년, 바베이도스	군소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한 ‘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BPOA)’ 채택	- 지속가능한 개발 - 기후변화 - 생물다양성 보존 - 재난관리 - SID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UN의 역할 강조
제2차 SIDS	2005년, 모리셔스	바베이도스 행동프로그램(BPOA) 추가 이행을 위한 ‘모리셔스 전략’을 채택	- 지속가능한 관광 - 지속가능한 에너지 -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제3차 SIDS	2014년, 사모아	SID의 특별한 요구와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의지를 담은 사모아 패스웨이(Samoa Pathway)’를 채택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 대양과 바다 - 생물다양성 -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제4차 SIDS	2024년, 앤티가 바부다	SIDS가 원하는 미래 비전과 향후 10년을 위한 ‘회복력 있는 번영을 위한 새로운 선언’ ‘앤티가바부다 아젠다’를 채택	- 기후변화 - 생물다양성 손실 - 해양 보존 - 재난 위험 감소 - 금융 접근 - 부채 지속가능성

표 출처: UN 자료 참고해 저자 작성

회복력 있는 번영을 위한 새로운 선언 ‘앤티가바부다 아젠다’의 주요 내용

ABAS는 SIDS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구하고,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ABAS는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SIDS를 위한 대규모의 새로운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부채의 지속가능한 지원 서비스를 요구한다. ABAS의 지원 요구사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지만 지원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SIDS의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화를 위한 ‘SIDS Center of Excellence(SIDS4에서 설립을 요청함)’를 통한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 지원, 바베이도스에 있는 서인도제도대학교⁷⁾ 케이브힐 캠퍼스에 위치한

7) 서인도제도대학(UWI,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은 자메이카에 모나캠퍼스 최초 캠퍼스 설립(48)을 시작으로 5개 지역 캠퍼스(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앤티가바부다, 오픈캠퍼스)와 10개 글로벌센터를 둔 카리브해 대표 종합공립대학이다.



‘SIDS-SID 녹색-청색경제 지식이전 허브(the SIDS-SIDS Green-Blue Economy Knowledge Transfer Hub)’ 활동 지원 등이다. 그 외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UN 사무국에 기존의 SAMOA Path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2025년 2분기까지 ‘ABAS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개발을 요청하고 있다.

SIDS가 원하는 미래 비전을 아래와 같다.

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하기 위해** i) 생산 역량을 개발하고 확장한다. ii) 무역과 투자를 확대한다. iii)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장려한다. iv) 지속가능한 해양 기반 경제를 촉진한다.

② **안전하고 건강하며 번영하는 사회조성을 위해** i) 의료 시스템을 강화한다. ii) 국민 참여 및 협의 확대를 위한 강력한 기관을 구축한다. iii)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청소년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③ **안전한 미래를 위해** i)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 및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하고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ii) 통합 수자원 관리를 개발한다. iii) 식량 안보를 강화한다. iv) 교통, 에너지, 통신, 수자원, 보건 및 교육 등 분야에 투자를 위한 SIDS의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v) SIDS 경제를 지역 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하기 위해 운송 및 연결성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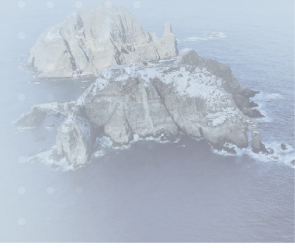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④ **환경 보호 및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i) UNFCCC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등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한다. ii)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한다. iii)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iv)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심화되는 재난에 대응한다.

2034년까지 SIDS를 위한 ‘앤티가바부다 아젠다’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 아래 지원을 요청한다.

① **경제적 회복력을 구축을 위해** i) 국제금융구조를 개혁하고 저금리 양허성 금융에 접근성을 높인다. ii) 개발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 iii) 부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원한다. iv) SIDS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킨다. v)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② **완전하고 효과적인 UNFCCC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기존 이행 의무 및 기후재정을 포함한 기후 행동 지원을 확대한다.

③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회복하기 위한** 신속하고 긴급한 조치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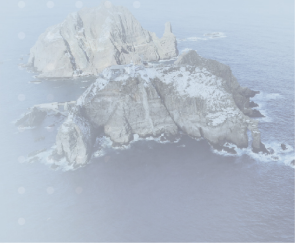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 ④ SIDS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 이용 이행을 위한 역량 구축을 지원한다.
- ⑤ 재해에 대한 회복력 구축을 지원한다.
- ⑥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 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 ⑦ 데이터 수집·분석 및 사용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⑧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실행 수단을 제공한다.
- ⑨ 생산성 향상, 고용, 평등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⑩ 이해관계자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적 시사점

SIDS는 소규모, 지리적 원격성, 고도로 분산된 인구, 제한적이고 일부 산업에 집중된 경제 특성, 외부 시장에 높은 의존도, 재해에 노출 정도가 큰 특성으로 인해 외생적 충격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SIDS가 개발 가능성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물리적 파괴와 비경제적 손실, 경제적 손실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번 SIDS4 회의에서 많은 성과를 도출했지만, 진정한 성과는 다자간 파트너십, 혁신, 협력 및 포괄성을 유지하며 SIDS의 독특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다. ABAS 실현을 위해 각국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유엔 체제 내 모든 수준에서 SIDS의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1] UN 홈페이지 <https://sdgs.un.org/topics/small-island-developing-states#undefined>(검색일: 2024.6.21.)
 [2] 제4차 SIDS 회의 홈페이지 <https://sids4.gov.ag/about.php>(검색일: 2024.6.21.)
 [3] 제4차 군소도서개도국 국제회의 결과 문서(A/CONF.223/2024/4*)
 [4] UN 홈페이지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blog/2024/05/closing-press-release-sids/>(검색일: 2024.6.21.)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전문연구원 정현욱

OECD 회원국, 2022년에 기후재원 1천억 달러 제공 목표 달성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 I (Annex I)로 분류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개도국)들에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의 기후재원(Climate Finance)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⁸⁾ 기후재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탄력적으로 대응 및 적응하고자 하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기술개발,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된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약속 이행이 늦어져 '2020년' 목표는 '2025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보다 빠른 2022년에 이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림 3. 기후재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제공 및 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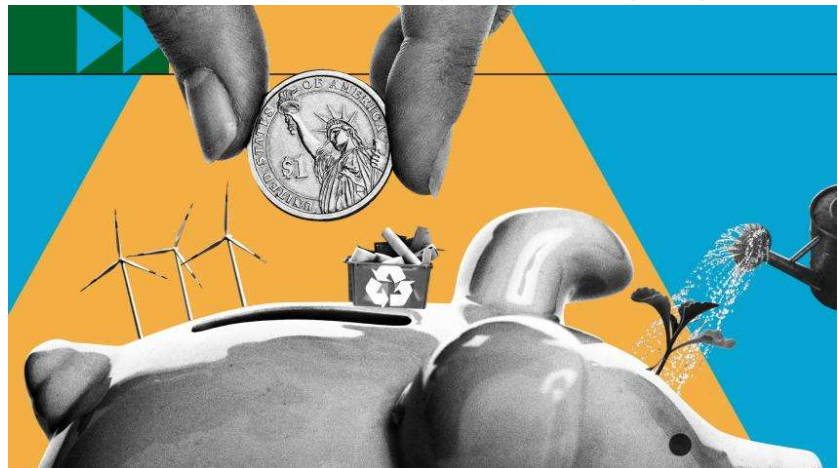


그림 출처: United Nations

8) UNFCCC에서 부속서 I (Annex I) 국가의 분류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를 위주로 구성된다. 이는 1992년 이 협약이 채택될 당시 상황을 반영하며, 주로 OECD 회원국과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OECD 국가가 모두 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된 것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는 OECD 회원국이지만 Annex I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 반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Annex I 국가로 분류되지만, OECD 회원국은 아니다.



OECD 총장, “2025년 이후 기후재원 목표 상향되어야”

OECD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은 5월 29일 “회원국들이 2022년에 이 목표를 달성했으며, 2020년 목표보다는 늦어졌지만 2025년보다 일찍 달성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OECD는 2025년까지 1천억 달러 목표 달성 여부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추가적인 정책 노력을 권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코먼 사무총장은 “2025년 이후 새로운 목표는 종전보다 더욱 높게 설정되어야 하며, 다양한 공급자와 민간 부문은 청정에너지, 농업, 회복력 같은 분야에서 투자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이번 발표는 2025년 이후 기후재원에 대한 ‘새로운 집단 정량화 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를 설정하기 위한 UNFCCC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정 중에 나와 더욱 시선을 끌었다. 이 목표는 2025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경제에서 기후재원을 얼마나 조달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인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코먼 사무총장은 2025년 이후 기후 관련 금융 수요의 범위와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 재원, 그리고 정책 인센티브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재원에 대한 새로운 집단 정량화 목표의 범위와 설계가 기존 목표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4. 2013~2022년 개도국을 위한 기후재원 규모 추이

Climate fin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Amounts provided and mobilised by developed countries, b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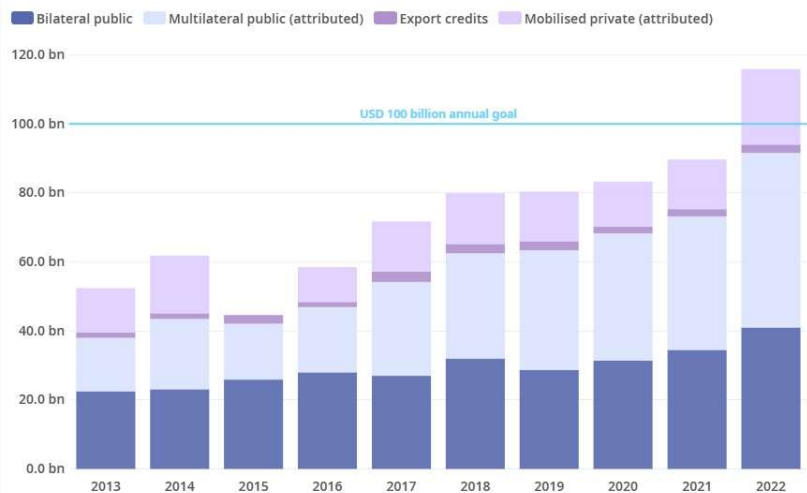


그림 출처: OECD(2024.5.29.)



2022년까지 집계된 기후재원에 따르면, 양자 또는 다자 채널을 통한 공적자금이 전체 기후재원의 약 80%를 차지한다. 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자금 동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협력 방안이 유엔과 개별 당사국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한편, 기후재원 1천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 금액은 사실 개도국의 재생 에너지 보급과 해수면 상승 대비에 필요한 자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많다. 실제로 2021년 UNFCCC 재정상 임위원회는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 계획을 이행하는 데 거의 6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6조 달러조차도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코먼 OECD 사무총장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기후재원 목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을 비롯한 각 당사국의 실제 목표 달성 여부가 강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공적자금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참여를 통한 재원조달 방법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출처 : [1] UNFCCC(2024.4.29.), From Billions to Trillions: Setting a New Goal on Climate Finance, <https://unfccc.int/news/from-billions-to-trillions-setting-a-new-goal-on-climate-finance>(검색일: 2024.6.11.)
 [2] United Nations, Why finance climate action?, <https://www.un.org/en/climatechange/why-finance-climate-action9>(검색일: 2024.6.22.)
 [3] OECD(2024.5.29.), Developed countries materially surpassed their USD 100 billion climate finance commitment in 2022 - OECD, <https://www.oecd.org/newsroom/developed-countries-materially-surpassed-their-usd-100-billion-climate-finance-commitment-in-2022-oecd.htm>(검색일: 2024.6.10.)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전문연구원 정현욱

2024년 UNFCCC 당사국총회 키워드 전망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9) 사전 준비를 위한 6월 UN 기후회의(June UN Climate Meetings)가 6월 3일에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 사무총장은 재원,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투명성, 적응, 시민사회의 역할과 포용성 등이 올해 당사국총회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스티엘 사무총장이 강조한 내용을 이슈별로 정리한 것이다.

재원(finance)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과 양허적 형태의 자금이 세계 금융 개혁과 결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채 완화와 저렴한 자금 제공을 실현하고 혁신적 자금 조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파리협정 제6조의 진전을 통해서 더 나은 국제탄소시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3.0

새로운 국가기후계획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3.0은 이번 세기에 개발된 가장 중요한 정책 문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목표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해 기후재앙을 피하는 것 이상이다. 잘 수행된다면 이는 각국의 경제와 사회를 추진하는 강력한 청사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탄력성, 기회, 인류의 더 나은 건강과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더욱 대담하고 야심 차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미 이루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구현 간격을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혜택은 여성, 원주민, 청소년 및 현재 기후 영향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이어져야 한다.

투명성(transparency)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올해 첫 번째 격년의(biennial)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더욱 강력한 증거 기반을 구축하고, 기부자와 투자자에게 기회의 규모와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줄 것이다.



영향과 적응(impacts and adaptation)

기후변화의 영향은 정치적 경계를 초월하여 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와 문화에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어린이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우리 사회 전반을 포괄하고 모든 경제 부문을 다루는 국가 적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국가적응계획을 재구상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해야 한다. 한 가지 명확한 방법은 적응 자원과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57개 당사국만 이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바쿠에서 당사국총회를 하기 전까지 참여국 수를 늘려야 한다. 모든 당사국이 2025년까지 국가 적응 계획을 갖추고, 2030년까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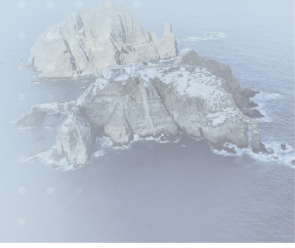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시민사회와 포용성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기후행동 기구를 완전히 작동시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안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그 혜택이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모든 목소리가 들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성평등과 기후 행동은 함께 진전되어야 한다.

정책적 시사점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시민사회 전체의 참여가 필요한 전 인류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적응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 기후재원 제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 수립 및 홍보, 국제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출처 : [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2024.6.3.), Simon Stiell Opening Speech: We Can't Afford Rest Stops, Detours or Stumbles at this Halfway Point in Humanity's Climate Journey, <https://unfccc.int/news/simon-stiell-opening-speech-we-can-t-afford-rest-stops-detours-or-stumbles-at-this-halfway-point-in>(검색일: 2024.6.7.)



북아메리카 미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2024 발리카탄 훈련, 최초로 남중국해 필리핀 EEZ에서 진행

미국과 필리핀의 최대 연합 연례 군사훈련인 '발리카탄(Balikatan) 훈련'이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다. 올해 훈련에는 양국 군인을 포함해 16,00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하였다. 발리카탄 훈련은 1951년 체결된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과 1999년 체결된 방문군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에 따라 이뤄지는 양국의 최대 연합훈련으로, 올해 39회째를 맞이하였다. 여기서 발리카탄은 필리핀 타갈로그어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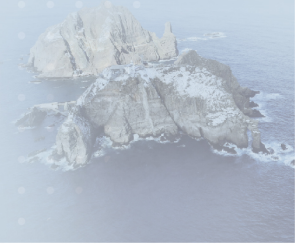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친중국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대통령 시기(2016년 6월~2022년 6월)에는 참여 병력, 작전 범위 등 발리카탄 훈련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하지만 2022년 6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중요시하는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Bongbong Marcos Jr.)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 연합훈련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17,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그림 5. 2024 발리카탄 훈련 정보작전 브리핑 모습



그림 출처: U.S. Embassy in the Philippines(2024.4.17.)

최근 남중국해에서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무력 충돌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올해 여러 가지 특이 사항이 포함되어 2024년



발리카탄 훈련은 국제적으로 더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사항은 첫째, 훈련 구역이다. 올해 발리카탄 훈련은 1991년 첫 훈련 이후 최초로 남중국해 상의 필리핀 영해 밖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합동 해군 작전을 진행하였다. 이 해역은 중국과 필리핀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으로 최근 양국 간 무력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곳이다.

둘째, 훈련 시나리오에 적군에게 빼앗긴 대만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남사군도) 인근 필리핀 섬을 탈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실제로 미국과 필리핀은 이번 훈련 기간 대만과 인접해 있는 필리핀 최북단 섬인 잇바야트 섬(Itbayat Island)에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섬 탈환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작전에는 호주군 150명도 동원되었으며, 침략군 상륙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되었다. 잇바야트는 대만 최남단에서 거리가 약 150km에 불과하다. 이에 미국과 필리핀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중국 견제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림 6. 필리핀 북서부 잇바야트 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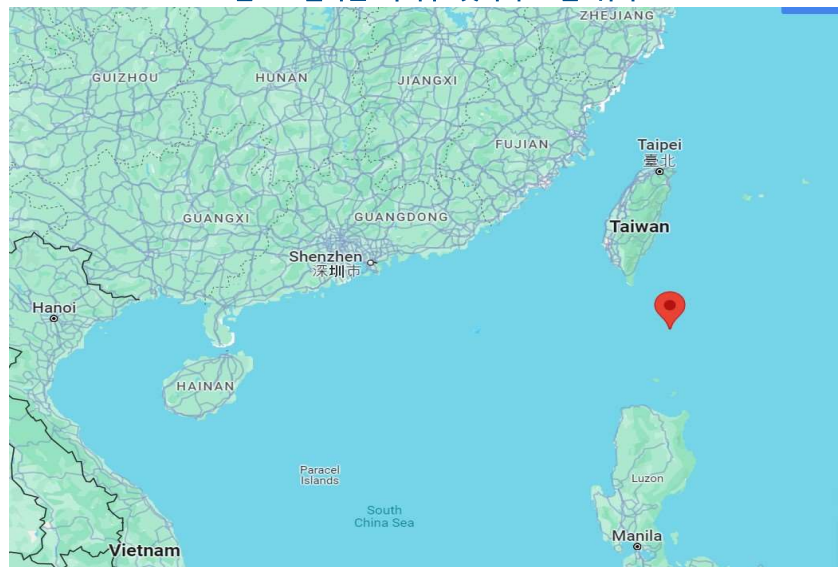


그림 출처: Google Map

셋째, 이번 발리카탄 훈련에서 미국과 필리핀은 중국에서 생산된 필리핀 유조선인 'BRP 레이크 칼리라야(Lake Caliraya) 호'를 남중국해 해상에서 격침하는 훈련을 시행하였다. 필리핀 국방부는 특정 국가에 메시지를 전달 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중국 관방언론인 환구시보(Global Times)는 필리핀이 보유한 유일한 중국산 함정을 격침하는 훈련이 어떤 국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하였다.

넷째, 올해부터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처음으로 발리카탄 훈련에 참여하고



6척의 함정을 파견하였다. 지난해에만 몇 차례 걸쳐 세컨드 토마스 쉘(Second Thomas Shoal) 부근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레이저나 물대포를 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필리핀 해경도 해당 해역에서 활동하였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또한 중국 해경과 마찬가지로 군사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마지막 다섯째, 올해 훈련에는 미국과 필리핀, 그리고 2014년부터 발리카탄 훈련에 참여한 호주 이외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14개국이 국제 옵서버로 참여하였다. 프랑스는 구축함을 파견해 직접 훈련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2025년 발리카탄 훈련부터는 일본도 참여할 예정이다.

필리핀, 잇바야트에 해안경비대 기지 건설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Gilberto Teodoro Jr.)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이번 훈련 종료식에서 2025년에 실시될 다음 다자간 훈련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전면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리카탄 훈련에 앞선 지난 4월 미국, 필리핀,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미국과 그 동맹인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은 남중국해 해양안보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의 미·필 연합훈련, 발리카탄



그림 출처: Indo-Pacific Defense Forum(2024.5.)



필리핀은 올해 발리카탄 훈련이 끝난 이후인 5월 24일, 잇바야트에 해안 경비대 기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에두아르도 아노(Eduardo Año) 필리핀 국가안보 자문관은 24일 성명을 통해 “잇바야트는 대만 문제 등으로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한 지역으로, 필리핀의 해양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불법 무역, 마약 밀매, 해적, 외국의 침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양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1] Indo-Pacific Defense Forum(2024.5.), 2024 발리카탄 훈련, 필리핀-미국 상호운용성 및 다자간 파트너십 구축, <https://ipdefenseforum.com/ko/2024/06/%ed%95%84%eb%a6%ac%ed%95%80%ec%97%90%ec%84%9c-%ec%a7%84%ed%96%89%eb%90%9c-%eb%b0%9c%eb%a6%ac%ec%b9%b4%ed%83%84-24-%ed%9b%88%eb%a0%a8-%ec%97%b0%ed%95%a9-%ea%b5%b0%ec%82%ac%eb%a0%a5%ec%9d%98-%ea%b8%b0/>(검색일: 2024.6.9.)
- [2] Global Times(2024.4.20.), Using Chinese-made ships as targets for military exercises is a ridiculous stunt by Philippines: Global Times editorial, <https://www.globaltimes.cn/page/202404/1310935.shtml>(검색일: 2024.6.13.)
- [3] South China Morning Post(2024.4.18.), Balikatan military drills: Philippines says sinking of China-made ship ‘not intentional’, <https://www.scmp.com/week-asia/politics/article/3259385/balikatan-military-drills-philippines-says-sinking-china-made-ship-not-intentional>(검색일: 2024.6.8.)
- [4] U.S. Embassy in the Philippines(2024.4.17.), PHILIPPINE, U.S. TROOPS TO KICK OFF EXERCISE BALIKATAN 2024, <https://ph.usembassy.gov/philippine-u-s-troops-to-kick-off-exercise-balikatan-2024/>(검색일: 2024.6.8.)
- [5] USNI News(2024.5.9.), U.S. and Philippine Forces Defend Island Chain Near Taiwan in Balikatan 2024 Exercise, <https://news.usni.org/2024/05/09/u-s-and-philippine-forces-defend-island-chain-near-taiwan-in-balikatan-2024-exercise>(검색일: 2024.6.10.)
- [6] VOA(2024.4.23.), 미국-필리핀 ‘발리카탄’ 연합훈련 개시, <https://www.voakorea.com/a/7580062.html>(검색일: 2024.6.11.)



3개월 내 행사계획

제60차 UNFCCC 당사국총회 보조기관 회의 | 2024년 6월 5일 ~ 6월 15일 / 독일 본

- 주요 내용 제58차 과학기술자문분과위원회(SBSTA) 및 제58차 이행보조기구(SBI) 회의 개최
-ETF에 따른 보고 도구 개발 진행 상황 업데이트, 국가 주도 전략 워크숍,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포함된 배출지표 조사 결과에 관한 기술 워크숍 등

제3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 | 2024년 6월 10일 ~ 6월 14일 / 뉴욕

- 주요 내용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보고서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검토, 국제해양법재판소 예산 사항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2명 선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부간회의 | 2024년 6월 24일 ~ 6월 26일 / 뉴욕

- 주요 내용 국가관할권 밖인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논의

로도스 아카데미 | 2024년 6월 23일 ~ 7월 12일 / 그리스 로도스섬

- 주요 내용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규범 현안 관련 강의

제75차 회기 국제법위원회 | 2024년 7월 1일 ~ 8월 2일 / 제네바

- 주요 내용 Bogdan Aurescu(루마니아) 위원 사임에 따른 신규 위원 선출, 국제법위원회 창립 75주년 기념 행사, '국가 책임에 관한 국가 승계', '국제법과 관련된 해수면 상승', '해상에서의 해적 행위 및 무장 강도의 예방 및 억제' 등 보고서 검토

제61차 대륙붕한계위원회 | 2024년 7월 8일 ~ 8월 23일 / 뉴욕

- 주요 내용 신규 선출된 위원회 위원의 선언, 소위원회 및 기타 보조기관에 신규 위원 임명, 부분 수정안 검토(모리셔스, 팔라우, 포르투갈, 스페인, 쿠바, 모잠비크 등 제출분), 절차 규칙 개정, 과학기술자문 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등 검토